

2012-2017 Portfolio

북에디터 변민아

차 례



1장 (이력) 나는 무엇을 했나

2장 (철학) 편집은 거시기다

3장 (포트폴리오) 편집자는 책으로 말한다

#1 부자

#2 여자

#3 도전

#4 비즈니스

[부록] 책임편집 책 목록

1장 (이력) 나는 무엇을 했나

2003.03 - 2009.08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영화연출 전공 입학 한양대학교 사회학과(전과) 과수석 졸업 (부전공: 중국경제통상)
2004.09 - 2004.12	중국 북경사범대학교 어학연수
2005.09 - 2006.06	중국 상해 푸단대학교 신문학과 재학
2009.09 - 2010.04	캐나다 어학연수(현지기업 Roots 무급 인턴)
2010.09 - 2011.02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재학 (3개학과 통합 SSK 프로젝트 연구조교)
2011.11 - 2013.04	한언출판사 근무(편집자)
2013.04 - 2016.02	다산북스 근무(편집자)
2016.03 - 현재	출판기획 및 편집 프리랜서 한국직업방송 강의소 <청산유수> 출연

2장 (철학) 편집은 거시기다

편집은
아슬아슬
줄을 타야 한다

저자와 독자 사이의 줄타기

편집은 소통을 위한 과정이다. 저자의 생각을 담은 콘텐츠를 독자의 입맛에 맞게 다듬어 그 둘 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문장의 조사 하나에도 신경을 쓴다.

분야와 분야 사이의 줄타기

점차 분야 간 경계가 무너진다.

『정글만리』, 『미생』을 자기계발서로 소화하는 시대, 자기계발서 표지에도 문학적 감성을 부여할 수 있고, 인문학서와 자기계발서의 경계도 점차 무너지고 있다. 그 영역을 유연하게 넘나들 줄 알아야 새로움이 창출된다.

첫째도 콘셉트
둘째도 콘셉트
셋째도 콘셉트

모든 판단의 기준, 콘셉트

이 문단을 빼야 하나 말아야 하나,
원고 구성은 어때야 하나, 문체는
어때야 하나.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콘셉트이다. 콘셉트는 편집에 있어
기둥 같은 것으로, 편집 과정 중 닥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준다.

콘셉트가 저자를 이긴다

출판 시장이 ‘저자 비즈니스’에서
‘콘셉트 비즈니스’로 넘어왔다.
저자의 네임밸류가 판매를 좌우하는
시대는 지났다. 신인 저자도 얼마든지
출판 시장에서 콘셉트로 승부수를
던질 수 있기에, 편집자는 계속해서
신인 저자를 발굴해야 한다.

저자는
내 인생의
자산이자 파트너

저자는 한 영역의 전문가이다


책을 내는 사람들은 모두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자 프로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의 전문가들과 미팅을 하려면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저자의 전문 영역을 존중하고, 그들로부터 세상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이 편집자의 역할이다.

저자와의 관계가 편집의 질을 좌우한다

저자와의 관계가 편집의 질을 좌우하기도 한다. 편집자는 저자의 삶에 관해 내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므로, 저자 입장에서는 비밀을 들킨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더 돈독한 관계를 맺기 위해 저자분들에게도 내 인생 계획을 이야기하곤 했다. 그러면 다음번에 만났을 때 서로의 계획을 점검할 수도 있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도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깊어졌을 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도 높아졌다.

3장 (포트폴리오) 편집자는 책으로 말한다

#1 부자



출판 시장에 ‘부자’라는 키워드를 다시 유행시킨 〈부자 3종 시리즈〉

성공적인 런칭으로 다산북스에서 ‘부자변씨’라는 닉네임을 얻게 해준 〈부자 3종 시리즈〉. 시리즈를 관통하는 중요한 콘셉트는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비움의 미학을 실천한다’는 것, 따라서 기존의 ‘부자’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책들이 갖고 있는 ‘속물 같은 느낌’을 퇴색시켰다.

그런 의도를 담아 깨끗한 화이트 톤에 아주 심플한 표지를 구현했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반양장’으로 제작했다.



『부자의 그릇』
이즈미 마사토 저, 2015

★2015 상반기 경제경영 분야 1위

★2015 국방부 진중문고 대상도서 선정

“나는 평생 부자가 되지 못할 줄
알았다!”

‘교양 소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경제경영서임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감성을 부여했다. 동시에 ‘경제경영서’가
줘야 하는 리얼리티를 위해 원서 표지에
있던 할아버지 이미지를 띠지에 넣어
‘실체’가 있는 이야기라는 느낌을 주었다.
연륜 있는 할아버지가 말을 건네는 듯한
띠지 카피와 시리즈를 관통하는 심플하고
하얀 표지, 표지 속 정갈한 빈 그릇은
부자는 채우려고만 한다는 편견을 깬
‘비움의 철학’을 상징한다.

원서 제목은 『부자의 유언』이었으나,
핵심 메시지인 ‘사람마다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다르다’를 반영해 ‘부자의
그릇’으로 정했다. 소설의 느낌을 주기
위해 국면이 바뀌는 것을 기준으로
장 구분이 없던 원서와는 달리 3장으로
나눠 호흡을 짧게 만들었다.



『부자의 운』
사이토 히토리 저, 2015

★2015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

★성공적인 개정판 런칭

“왜 부자들은 운을 중시할까?”

사이토 히토리의 『운이 좋다』 (다산북스) 개정판. 『부자의 그릇』이 성공하자마자, 이 책을 ‘부자 카테고리’로 편입시켜 재빠르게 개정판으로 런칭했다. 초판보다 몇 배가 넘는 판매부수를 기록했을 만큼 개정은 성공적이었다.

‘운’을 흔히 미신과 결부시키지만, 사실 알고 보면 부자들이 운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공략했다. 이 책이 일본에서는 강의가 녹음된 CD와 함께 팔렸을 뿐 아니라 본문 문체가 구어체인데, 한국어판 초판의 경우 목차는 문어체를 쓰고 있어 본문과 목차 모두 ‘사이토 히토리가 옆에서 말하는 듯한’ 느낌으로 다시 뽑았고, 구성을 완전히 바꿔 5장으로 나누었다. 경영자들, 주부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책이다.

부 자 의 인 간 관 계

물론 사람에게 돈이 있어야 사는 법

사이토 히토리 지음
김기영 옮김



"돈 때문에 힘드신가요?
그럼, 고쳐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 개인납세 연속 행정 개편,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과 인간관계

다산

『부자의 인간관계』

사이토 히토리 저, 2015

★2015 상반기 자기계발 베스트셀러

★돈과 인간관계를 모두 잡는 부자의 조언

“선에 강해지려면 악에도 강해져야 한다!”

부자 3종 시리즈의 마지막 책. 그릇을 넓히고, 운을 중시하는 것, 그다음은 ‘사람을 남기는 일’이라는 점에 독자들도 크게 공감할 거라 예상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핵심 키워드로 뽑았다.

원서에는 중간중간 그 장의 내용을 한두 마디로 요약하는 박스가 있었는데, 호흡을 계속 끊게 만들뿐더러 일서 특유의 분위기가 너무 두드러지는 것 같아 그 부분을 다 뺐다. 그리고 그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메시지를 마지막에 부록편에 따로 디자인해 넣었다(잘라서 지갑에 넣어 쓸 수 있도록 함).



『부자의 그림』
정희도 글, 이윤미 그림, 2016

★자기탐색이 가능한 신개념 컬러링북!


“색칠만 해도 재물운이 쌓인다!”

‘부자’와 ‘컬러링’, ‘컬러링’과 ‘타로’의 만남.

‘재물운’이라는 주제로 재해석한 78장의 타로 이미지를 새로 제작하여 색칠만 해도 재물운이 좋아지는 컬러링북으로 기획하였다. 모든 그림을 다 칠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성향을 테스트하여 그 성향에 가장 잘 맞는 그림들을 선별해주는 가이드라인을 신는 등 기존의 컬러링북을 뛰어넘기 위해 디테일에도 최대한 신경을 썼다.

중국을 포함하여 세계 몇 개국에 동시 방영되었던 TvN 드라마 <신데렐라와 네 명의 기사>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2 여자



내 전문 분야, 여성 자기계발서

내가 이 분야의 책을 만드는 걸 가장 좋아할 줄을 꿈에도 몰랐다. 편집자가 되어서야 내가 여성들의 행복에 얼마나 큰 관심이 있는지 알게 되었다. 여성 자기계발서는 내 전문 분야로, 재테크서, 여행서, 실용서(손금 책)를 맡게 되었을 때도 책의 타깃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좀 더 대중적인 '여성 자기계발서'로 포지셔닝했다. 목차 구성 등을 자기계발서로 스타일링해 원래 분야와 자기계발서의 경계를 넘나들기도 했다.



『여자의 습관』
정은길 저, 2013

- ★2013 재테크 분야 1위
- ★2013 상반기 교보 종합 18위
- ★2013 교보 종합 베스트셀러 Top 200

“습관을 바꿔야 돈이 모인다!”

편집 당시 가장 큰 고민은 ‘저축과 절약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독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끼게 할 것인가’였다. 결국 저축과 절약을 ‘습관’이라는 개념으로 치환하여, ‘라이프스타일을 바꿀 때 비로소 돈이 모인다’는 메시지를 확립했다. 표지 또한 기존의 재테크서가 보여주지 못한 ‘트렌디한 여성 잡지’와 같은 느낌을 구현하였고, 궁극적으로 여성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담았다. 이로써 세련된 느낌의 자기계발서로 포장된 재테크서가 완성되었다.

목차나 카피에서는 저자의 ‘실제 경험’임을 강조하였다. “29살, 나는 저축만으로 1억을 모아 내 집을 마련했다!”라는 광고 카피로 출간되자마자 큰 주목을 받아 분야 2013년 상반기에 교보문고에서 경제경영 분야 1위, 종합 18위를 기록했다.



『나는 더 이상 여행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
정은길 저, 2015

- ★여행 에세이가 아닌 여행 자기계발서
- ★여행과 ‘미니멀리즘’의 관계를 풀어냄

“쉬는 만큼 삶이 쉬어진다!”

『여자의 습관』(다산북스)으로 인지도를 넓힌 정은길 아나운서의 두 번째 책. 첫 책의 에필로그에서 7천만 원을 모아 세계 여행을 떠날 거라고 밝혔기에 그대부터 저자와 함께 여행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해나갔다. ‘생활재테크의 달인’으로 브랜딩된 저자의 첫 책이 가진 후광을 이어감과 동시에 ‘여행 에세이’만이 갖고 있는 감성을 담아내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분야는 에세이로 포지셔닝했지만, 목차와 내용은 ‘여성 자기계발서’ 분위기가 나도록 구성하여 여행지에서 느낀점에 치우친 에세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책감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 여행의 가치를 ‘미니멀리즘’, ‘심플 라이프’와 연결지어 여행이란 ‘비움’을 배우기 위한 한 과정임을 강조했다.



『엄마의 돈 공부』
이지영 저, 2016

★2016 상반기 재테크 분야 1위

★국내 최초 맘재테크 입문서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지영 저자는 평범한 워킹맘으로 1,500만 원으로 신혼을 시작했지만 현재 순자산 20억 원을 소유하고 있다. 원래는 경매나 부동산 투자에 관한 책을 생각했으나, 미팅을 통해 저자의 강점이 ‘자기계발서’와 더 적합하다고 확신하여 ‘맘재테크 전문가’로 브랜딩하기로 하고, 기술보다는 과정과 내공을 더 강조하는 ‘돈 공부’라는 키워드를 가져왔다.

기존의 재테크서가 갖고 있는 차갑고 딱딱한 남성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고 엄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감성’이라는 요소를 끌어들여 여성 자기계발서 느낌이 나도록 구현했다. 목차 또한 숫자 등을 어려워하는 재테크 초보 엄마들이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팁을 중심으로 뽑았다. 출간되자마자 분야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이슈가 되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여자』
박소영 저, 2013

★국내 최초 손금 자기계발서

“당신의 선택에 확신을 주는 명쾌한
손금 솔루션!”

편집 당시 영화 <관상> 개봉을 앞두고
있어 그 분위기를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했다. 박소영 저자는 손금 분야에서 이미
인지도가 높을 뿐 아니라,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손금 리딩가다.
사실 이 책은 저자의 첫 책 『손금을
알면 인생이 보인다』(다산북스)의
개정증보판으로, 초판의 내용을 완전히
보완하고, 손금 설명 이미지를 모두
다시 만들어 퀄리티를 최상으로 높였다.
단순히 손금 책이 아닌 자기계발서로
포지셔닝하여 여성들의 흔한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주는 식으로 본문을 구성하였다.
이 책을 편집하면서 나 또한 손금 리딩의
기초를 배우게 되어 거의 100명에 가까운
분들의 손금을 보게 되었다. 신간 배본
미팅에 동행하여 온라인 서점 MD의
손금까지 봤을 만큼,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쓰여 있다.

#3 도전



저자와 함께하는 도전은 언제나 가치 있다

국내 기획서의 경우, 특히 첫 책을 집필하는 저자와 함께할 때는 같이 ‘도전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그중 ‘청년 챌린저’ 이동진 저자, 인재양성소 인큐의 윤소정 대표와의 작업이 유독 기억이 남는다. 이동진 저자는 다산복스 사옥으로 거의 3개월 출퇴근을 하며 같이 작업을 했고, 윤소정 대표와는 주말에도 만나 책의 방향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나는 저자와 ‘으쌔으쌔’ 했던 책에는 그 에너지가 그대로 실려 독자들에게도 전해진다고 믿는다.



『당신은 도전자입니까』
이동진 저, 2014

★이동진이라는 스타 청년 저자 발굴

★다음 스토리펀딩 710% 달성

“재고 따지느라 시작조차 못 하는
당신을 위한 이동진의 도전법!”

이동진 저자는 사실 나와 약 10년 전부터
알던 사이로, 대학교 시절 ‘미래숲’
이라는 NGO에서 만났다. 당시 그는
나의 마니또였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정말 극적으로 저자와 편집자라는 관계로
이어졌다(아주 영화 같은 이야기다).
‘실행력’으로는 대한민국 최고라 자부하는
저자 덕분에 3개월 안에 원고 집필부터
책 출간까지 해낼 수 있었다. 저자는
거의 다산복스 직원인 양 매일 사무실로
출퇴근을 했고, 그 덕에 나와 거의 매일
회의실에서 이 책의 방향성과 콘셉트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다. 유려한 문장이
아닌, 거칠지만 저자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 ‘정제되지 않은 듯한 문체’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고, 저자의 지인들과
만나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대화를
녹취해 편집하여 실었다. 이처럼 청년들의
공감대를 자아내는 데 주력했다.




『인문학 습관』
윤소정 저, 2015

- ★국내 최초 인문학 트레이닝북
- ★출간 후 3일 만에 3쇄 제작
- ★2016 국방부 진중문고 대상도서 선정

“100권의 고전보다 10분의 습관!”

나는 윤소정 저자를 잡기 위해 역지사지를 하며 저자가 어떤 편집자를 원할지, 어떤 콘셉트와 기획을 가져가야 만족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오랜 기간 삼고초려하였다. 그렇게 연을 맺어 출간까지 약 1년 6개월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 책에 대해 논의했고, 그렇게 ‘인문학 습관’이라는 콘셉트가 탄생했다. 가제는 ‘인문학 훈련소’였는데, 더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기 위해 ‘습관’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왔다. ‘인문학도 트레이닝이 가능하다’, ‘고전 읽기가 곧 인문학은 아니다’, ‘인문학도 습관이다’와 같은 다소 도전적인 메시지를 담은 ‘센세이션한 신개념 인문학 트레이닝북’을 만들고 싶었다. 저자가 운영하는 인큐의 실행력과 수강생, 팬덤의 힘으로 출간되자마자 사흘 만에 3쇄가 제작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4 비즈니스



‘돈·경영·사업’ 책을 만들며 사업가가 되기로 결심하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한언 출판사에 다닐 때만 해도 내가 경제 경영서를 만드는 데 흥미를 느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다산 북스에서 자기계발경제경영팀으로 첫 배정을 받고 이 분야의 책을 만들면서 굉장히 큰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돌이켜보니 대학교 때도 사회학을 공부했지만 그중 ‘경제사회학’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 사업을 하시는 저자분들을 수없이 만나며 나 스스로도 독립하여 사업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왜 나는 사업을 하는가』
이상수 저, 2014

★2014 한국출판문화협회 선정 우수 콘텐츠
당선작

“사업가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인드다!”

2014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당선작이다. 그만큼 초고가 좋았다.
사실 이 책은 ‘전자상거래’, 그중에서도
이베이 셀러로서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베이에서 돈 버는
법’과 같은 책으로 콘셉트를 잡으면 시장도
작고, 차별성을 만들기 어려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본질인 ‘사업가
마인드’에 초점을 두고 목차 등을 다시
스타일링했다.

‘왜 나는 ~하는가’라는 패턴의 제목은
그 뒤로도 세일즈 분야에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던 『왜 나는
영업부터 배웠는가』 (다산3.0), 손정의에
관한 책 『왜 나는 기회에 집중하는가』
(다산3.0)로 이어지기도 했다.



『신뢰의 마법』
김경악·박성현 공저, 2014

★에브리온TV라는 작은 기업을 직접 인터뷰
하며 엮은 다큐 콘텐츠

“왜 작은 회사의 사장은 신뢰에 집중하
는가?”

판도라TV의 자회사인 에브리온TV는 약
20명의 직원이 일하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회사다.

나는 이 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판도라TV
뿐 아니라 에브리온TV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다. 그 과정에서 사내 분위기가
어떠한지, 직원들의 표정은 어떠한지
직접 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 직원분들은
너무나 유쾌했고, 그들이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세팅한 사무실은 다른 데서 느끼기
어려운 에너지를 풍기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보고나서부터는 만나기 전의 의심(‘회사가
좋다는 건 대표만의 생각일 수도 있잖아?’와
같은 것들)이 싹 사라져버렸다.

또한 본문에 삽입할 사진 촬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며 촬영 과정을 디렉팅하는 재미를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영업의 가시화』
나카오 가즈히로 저, 2014



『경영의 가시화』
나카오 가즈히로 저, 2015

★가시화 시리즈 2종 출간

★다산북스 사내 소통 교육서로 활용

“모든 지식과 정보를 눈에 보이게 하라!”

다산북스에서 출간된 가시화 시리즈 3종(『성과의 가시화』까지 총 3종) 중 2종을 편집하였다.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저자가 일본의 2200개 사에서 시행했던 영업 트레이닝과 경영 매뉴얼을 토대로 하였기에 ‘실천서’로 포지셔닝했다.

판매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동양적인 느낌의 깔끔한 디자인이 눈에 잘 들어온다고 생각한다. 재미있는 점은 이 책이 출간된 후 다산북스에서는 저자가 강조했던 ‘업무일지’를 사내 인트라넷에서 전 직원이 매일 써서 업로드하여 서로 댓글을 달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갔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내 교육서로 쓰여 다산북스 직원들이 두루 읽었던 책이기도 하다.



『돈, 사업, 인생』
스기모토 히로유키 저, 2014



『미쳐야 사업이다』
스기모토 히로유키 저, 2016

★심폐소생술(개정 작업)로 환골탈태!
★청소년 분야 베스트셀러 『미쳐야 공부다』를
잇는 두 번째 책

“매일 18시간 몰입하는 자만이 사업에
성공한다!”

이 책은 외서검토서로 봤을 때만 해도
‘술자리도 능력이다’라는 콘셉트가
좋겠다고 판단했으나, 실제 번역 원고를
보았을 때는 그 콘셉트와는 괴리감이 있어
한 사업가의 처절한 V자 회복기를 다룬
책으로 탄생시켰다.

이 책은 저자는 일본인인데, 외서 작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저자와 직접 소통을 하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었다. 역자가 직접
저자와 연락을 했기 때문에 역자를 통해
직접 서신을 주고받았던 것이다.

원래 『돈, 사업, 인생』이라는 무겁고
중후한 느낌의 책으로 만들었으나 판매가
안 좋아 개정판인 『미쳐야 사업이다』
작업까지 맡았다. 2015년 청소년 분야
베스트셀러였던 『미쳐야 공부다』를 잇는
두 번째 책이었기에 그 책과 비슷한
레이아웃과 분위기를 유지했다.

[부록] 책임편집 책 목록

한언출판사

2012년

아케이 저, 심란희 역, 『풍자 도사 1800 한자 SHOW』 3~4, 한언

김영란 저, 『때론 맘, 때론 쌤, 그리고 나』, 한언

데보라 태넨 저, 정명진 역, 『그래도 당신을 이해하고 싶다』, 한언

2013년

우성주 저, 『호모 이마고』, 한언

다산북스

2013년

니시구치 다카노리 저, 김윤수 역, 『얼굴도 예쁜 그녀가 전략의 신이라면』, 다산북스

정은길 저, 『여자의 습관』, 다산북스

박소영 저, 『인생이 잘 풀리는 여자』, 다산북스

나가고 가즈히로 저, 김윤수 역, 『영업의 가시화』, 다산북스

2014년

나가고 가즈히로 저, 김윤수 역, 『경영의 가시화』, 다산북스

이동진 저, 『당신은 도전자입니까』, 다산3.0

한기호 저, 『마흔 이후, 인생길』, 다산초당

김경악·박성현 공저, 『신뢰의 마법』, 다산3.0

이상수 저, 『왜 나는 사업을 하는가』, 다산3.0

2015년

스기모토 히로유키 저, 동소현 역, 『돈, 사업, 인생』, 다산3.0

이즈미 마사토 저, 김윤수 역, 『부자의 그릇』, 다산3.0

사이토 히토리 저, 하연수 역, 『부자의 운』, 다산3.0

최성 저, 『올보 시장』 (개정증보판), 다산3.0

사이토 히토리 저, 『부자의 인간관계』, 다산3.0

정은길 저, 『나는 더 이상 여행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 다산3.0

윤소정 저, 『인문학 습관』, 다산초당

유재경 저, 『나는 지구 100바퀴를 돌며 영업을 배웠다』, 다산3.0

2016년

스기모토 히로유키 저, 『미쳐야 사업이다』 (개정판), 다산3.0

이지영 저, 『엄마의 돈 공부』, 다산3.0

정희도 저, 이윤미 그림, 『부자의 그림』, 다산3.0

2017년

이지영 저, 『엄마의 첫 부동산 공부』, 다산3.0

[그 외 출판사]

이세훈 저, 『아웃풋 독서법』, 북포스, 2017

2012-2017 Portfolio



2016년 5월 13일 초판 1쇄 펴냄
범민아 짓고 만듦

© 2016, 범민아

이 책의 저작권은 지은이에게 있으며 무단 복제와 전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출력제본 소다프린트

이 책은 상상마당 아카데미 '너와 나의 기록집' 19기 수업의 결과물입니다.